

시간당 81mm 물폭탄에 도로·농지 '물바다'

지난주말 한라산 등 산간 300mm 넘는 장맛비 기록 서귀포 일대 폭우... 6월 시간당 강수량 '역대 1위' 농지 침수 잇따르고 강풍 피해 속출... 50여건 신고

지난 주말 제주지역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비행기 결항과 함께 각종 사고가 속출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30일 오후 4시를 기해 제주지역에서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를 모두 해제했다. 다만 제주도앞바다와 먼바다에는 이시 간 현재(30일 오후 6시30분)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내려져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는 지난 29일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 한라산 진달래밭 364.5mm, 삼각봉 359mm 등 산간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나머지 주요 지점별 강우량은 한남 234.5mm, 표선 170.5mm,

가시리 202.5mm, 서귀포 183mm, 성산 152.6mm, 남원 143mm, 새별오름 111mm 등이다.

특히 지난 29일 서귀포와 성산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55.5mm, 81.0mm까지 치솟아 6월 기준 역대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바람도 강해 30일 삼각봉에선 순간최대풍속 초속 26m의 강풍이 관측됐다. 이밖에도 제주(북부)와 서귀포에 순간최대풍속 초속 16~23m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강풍에 더해 남부지방 기상 악화로 제주국제공항에서는 항공편 결항이 속출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30일 하루 제주공항

을 오갈 예정인 항공편 491편(국내선·국제선)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사전 비운항을 포함해 국내선 항공기 18편(출발 8편·도착 10편)이 결항했다. 또 80편(국내선 73편·국제선 7편)이 지연 운항했다.

바닷길도 일부 차질을 빚었다. 제주여행객센터에 따르면 이날 제주에서 관리하는 3항로 8척 중 2항로 3척이 결항했다.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펜스가 날아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1시6분과 5시21분에는 제주도 이도1등과 연등에서 펜스가 날아가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다. 또 전날 오후 1시3분 서귀포시 성산을 난산리에서는 차량 2대가 침수돼 소방대원이 대피작업에 나섰다. 그로부터 7분뒤 제주도 구좌읍에서는 주택 침수 피해로 배수

작업이 시행됐다. 이밖에도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우도면에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이날 오후 4시 기준 총 52건의 배수지원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비는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1일 밤부터 다시 내리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일 늦은 밤부터 2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30일 예보했다. 이 기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0~100mm이며,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강한 남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현기자

학생·학부모 돈 가로챈 고교 교사 구속

"코인에 투자했다" 진술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도 도교육청, 직위해제 조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지난달 27일 제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입건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학교 학생 B군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 받지

못하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빌린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신의 계좌로 빌린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받은 돈을 B군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또 지인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플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제주를 벗어나 대구에 머물던 A씨를 출석조사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자 지난달 25일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며 파문이 확산하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상민기자

"직장 내 괴롭힘 제주시 체육회장 파면하라"

제주참여환경연대 촉구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제주시 체육회장을 상급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광주시방고용노동청이 올해 1월 제주시 체육회 직원들이 낸 진정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제주시 체육회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며 "시체육회 회장이 감독기관인 제주시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민기자

에도 도체육회는 어떠한 조치도 안 한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직장에 있도록 하는 비상식적인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시체육회장이 12건의 직장내 괴롭힘을 저질렀음에도 과태료 처벌이라며 노동청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체육회가 12건의 직장내 괴롭힘을 저지른 시체육회장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로, 체육회 전체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제주시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민기자



지난 29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주택 마당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도소방안전본부 제공).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밭이 장맛비로 인해 침수됐다. 이상민기자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밭이 장맛비로 인해 침수됐다. 이상민기자



'도로 위 지뢰' 포트홀, 긴급 손 본다

제주시, 추경 48억 확보 연삼로 등 10개 노선

제주시는 연삼로 등 10개 주요 도로에 대한 포장 보수공사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 도로 파손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주요도로 12개 노선에 40

억원을 투입해 포장 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도로 전체로 확대하지 못하고 임시보수에 그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민원이 적잖았다. >> 사진

제주시는 추가경정예산 48억원

을 확보, 연삼로 등 노후된 주요도로 10개 노선에 대해 포장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포장 보수공사 대상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포트홀과 포장 노후로 균열·파손이 발생한 주요 간선도로이다.

제주시는 동절기 이전에 관련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파손된 도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현영홍기자

장애학생 인권 지원단 구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 지원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수학교 25교, 미설치교 5교, 특수학교 3교, 장애인 거주시설 2곳(총 35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도교육청 및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성교육 전문가, 장애인 복지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보호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특별 현장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감골묘목

▲유리조생 1,3년생	▲한라봉 2,3년생
▲궁천 2,3,4년생	▲황금향 2,3년생
▲레드향 1,3,4,5년생	▲하례조생 2,4년생
▲천혜향 2,3,4년생	▲레몬 4년생
▲하굴 4,5년생	▲오하라베니 3년생

그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견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골묘목

유리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탈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